

# 전북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 군산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따라 보조금 지원

### 일반지역보다 입지 50%·설비 34%로 대폭 늘어

전북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일반지역에 비해 입지는 30~50%, 설비는 14~34%로 대폭 확대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9~40%, 설비투자비는 11~24%까지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내 3개 기업 총 39억여원(지방비 포함)을 지금 결정 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73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7월에 개최예정인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전라북도에는 6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최근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및 GM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1년 미만 폐공장이 많은 군산지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폐공장 매입투자시 폐공장이 1년 이상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전북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번 고시를 통해 1년 미만 폐공장 매입 투자도 지원이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시가 도내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자 폐공장이 많은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연계해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시가 도내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자 폐공장이 많은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연계해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모내기 체험해요’

23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권농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풍년을 기원하며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권농일(勸農日)은 광복이후 부족한 농촌의 모내기 일손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23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권농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풍년을 기원하며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권농일(勸農日)은 광복이후 부족한 농촌의 모내기 일손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청년 친화형 공간 문 열다

### 도, 청년 내일 도움터 오늘 개소 시범운영

### 매월 2회 취업프로그램·세미나실 등 마련

전북도는 다양한 일자리정보 제공과 소통을 위한 청년 친화형 공간인 청년 내일 도움터를 24일 개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 내일 도움터는 60평 규모의 일자리 카페로 도내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스타터를 무료대여 등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2회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MBTI성격진단·유형 검사, 진로 탐색, 입사지원서, 면접스킬, 리더십, 취업특강 등)이 운영되며, 카페 내 스타터룸, 취업동아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명 규모의 세미나실(사전예약), 소통공간 등을 도내 청년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취업전문 운영기관(휴먼제이앤씨)을 통해 일자리 알선

은 물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청년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청년 내일 도움터는 청년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소통공간과 일자리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민간분야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고용서비스 모델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청년 내일 도움터가 기존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청년들이 쉽고 편하게 일자리 정보를 취득하고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 뒤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청년 친화형 고용서비스를 발굴,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청년이 머무는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박우정 고창군수 예비후보 개소식 성황리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 후보는 이날 고창터미널 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고창군수 재선을 통해 고창군 대도약과 함께 평화와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수혁 국회의원과 김윤덕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고창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의 중량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고창발전을 위해 지난 4년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앙부처, 국회, 민생의 현장을 누비면서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며 "고창군민과 함께 꾸준히 준비한 덕에 고창에 희망의 씨가 뿌려지고, 고창군 미래 백년대계가 성큼 다가왔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인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생활 안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문

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동안 큰 도약을 위해 강하게 활시위를 당긴 만큼 앞으로 4년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는 국민들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다"면서 "흑역사 말 잔치, 흑색선전, 거짓 뉴스를 앞세워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적폐의 잔재들이 아직도 고창에 남아있다면 군민들께서 호되게 꾸짖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농협, 미래 농업인 육성 토론

전북농협은 23일 본부에서 전북특성화교직원들을 초청해 특강과 미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미래 농업에 대한 전망과 전북의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참석한 교사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참여한 교사들은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동취재반

### 6·13 지방선거

### 전주시장 후보자 동향

## 김승수 “노 전 대통령의 꿈, 시민과 함께 이룰 것”

## 이현웅, 신성장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지방화 시대, 도시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수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추모 논평을 통해 “9년 전 오늘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과 권위주의를 타파하

기 위한 정치개혁,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역통합을 꿈꾸었다”고 회고한 뒤 “생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부패정권을 심판하고 정패를 청산하기 위한 촉발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지방분권으로 지방화 시대, 도시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6·13 지방선거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1·2·3·4·5정책 목표와 5대 핵심공약, 64개 실천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책선거를 통해 표심공략에 나섰다.



이현웅

이현웅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 전주시정은 재정자립도 꼴찌, 고용률 꼴찌, 예산대비 채무비율 1위, 실업률 4위, 1인당 지역 총소득 최하위 등 거꾸로 간 4년”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전문가 이현웅이 전주발전 10년을 앞당겨 7대 도시의 자긍

심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 전주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힘 있는 변화-전주의 성공적 산업혁명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 13개 정책 ▲시민이 주인-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14개 정책 ▲미래를 향한 전주-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 10개 정책 ▲문화에 날개를 달다-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15개 정책 ▲밝은 미래 약속-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 12개 정책 등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검증된 능력과 가슴의 리더십을 가진 제가 투명하고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전주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